

“광주·전남 주력산업 타격…미 관세 재인상 대비 서둘러야”

광주경총 “광주 자동차·부품, 전남 석유화학·철강 피해 불가피”
긴급 자금 지원 단기 조치, 산업구조 고도화 등 장기 대책 필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전남 수출 산업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철강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 구조상 미국발 관세 재인상 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관세가 15%에서 25%로 재인상되면 자동차·부품과 일부 제약·정밀화학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4년 미국의 한국산 재화 수입 규모는 1316억 달러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과 화학·의약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광주경총

의 설명이다. 광주는 수출 구조상 완성차·부품 등 운송장비의 의존도가 높으며, 광주경총은 추가 관세가 붙게 되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1·2차 협력사는 현지 판매가 조정 또는 마진 축소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단가 인하 요구와 물량 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타이어·가전 일부 품목은 수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 보류와 고용 조정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역시 석유화학·철강·조선이 주력 산업인 데다 자동차·운송장비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어 대미 관세가 다시 오르면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

이다. 여수·광양의 기초 화학 산업은 직접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과 세계 제조업 둔화 시 화학·철강 수요 위축과 단가 하락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남의 제약·바이오·정밀화학 기업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는 바이오가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내 생산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질 수 있어 매출 감소와 함께 연구개발(R&D)·설비투자 여력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관세 위험은 완성차 실적을 겨쳐 지역 협력사 등 부품 업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는 관세율이 25%로 재인상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올해에만 5조~10조원 수준의 추가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부품 단가 압박과

협력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관세 인상 보류를 요청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철회 또는 유예를 설득 중이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미국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제약·정밀화학 기업을 선별해 긴급 운전자금, 수출 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등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광주는 전기차·자율주행, 전남은 이차전지·첨단소재·정밀화학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관세가 붙어도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고부가 급급’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이마트·롯데마트발 새벽 배송 시대 열리나

정치권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피해 우려

정치권에서 그동안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새벽배송을 가능하도록 유통 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특히 지방 단위에서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져 실적 개선은 물론 외연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쇠락 가속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대

해 논의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새벽시간 동안 영업할 수 없고 매월 의무휴업일 2일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이 쿠팡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도입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 자체가 변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이번 실무 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전자상거래의 경우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에선 새벽배송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전해들었는데, 당장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현재 인프라에서 새벽배송 등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한 인력 충원, 배송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법이 개정된다면 필요할 때 소비자들이 물품을 배송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 증진에 대한 여지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당·정·청의 법 개정 논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에 치이고, 쿠팡의 대항마로 대형마트를 키우기 위해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비너스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대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비너스 란제리 연중 최저가 만나 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2일까지 4층 이벤트홀에서 ‘비너스 군일가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비너스 군일가전은 인기 란제리 브랜드인 비너스 제품을 연중 최저가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1년에 단 한 번만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1~2년차 이상 상품들을 최대 80%까지 할인하고, 특가 상품들도 별도로 선보인다. 올해는 행사 상품

도 300여 품목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뉴 메모리 세트’, ‘오르화 컴포트 세트’, ‘코트나 텐셀 남성 드로즈’ 등이 있다. 더불어 당일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롯데상품권을, 4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2만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LG에너지솔루션과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

공동참여·상호협력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지난 4일 LG에너지솔루션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공동 참여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공동 참여를 비롯해 가상발전소(VPP)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태양광·풍력 등을 이용한 발전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전력 판매권을 확보하는 구조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단독 참여 등이 제약받고 있으며, 많은 발전원을 묶어 운영하는 VPP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광주은행이 기존 운영하고 있던 태양광 전용 대출 상품 ‘RE100 SOLAR-LOAN’을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자금 지원 범위도 확



대한다. 기존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참여 사업자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의 VPP 플랫폼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도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대하 광주은행 신성장전략본부장은 “지난해 현대건설과의 녹색금융 동맹이 재생에너지 발전

소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협약은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씨티, 한국 경제성장 2.4%
을 2% 중반대 전망 첫 등장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말 평균 2.1%로 집계됐다. 한 달 전 2.0%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한국은행 전망치(1.8%)는 물론 정부 전망치(2.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달 중 씨티가 2.2%에서 2.4%로, UBS가 2.0%에서 2.2%로 각각 전망치를 크게 높였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1.9%에서 1.8%로 낮췄다. 바클레이는 2.1%,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9%, JPMorgan은 2.0%, HSBC는 1.8%, 노무라에 2.3%의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 중 씨티는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전망치를 7.1%에서 9.4%로 대폭 높여 눈길을 끌었다.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 기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54%로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환율, 수요 압력 등에 따라 물가 눈높이도 다소 높아졌다.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말 1.9%에서 올해 1월 말 2.0%로 0.1%p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박만 광주은행 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1대 광주은행 노조 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 제공>

“광주·전남 통합시대 지역경제 버팀목 될 것”

광주은행 노조 위원장 취임식

광주은행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3일 ‘제50년 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제21대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박만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대의원과 운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윤석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

장 당선인 및 각 자부 위원장, 그리고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대회사 및 취임사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에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충실한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특히 새로 취임한 정일선 은행장과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내일이 기대되는 광주은행을 만들어 내는 노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

올 광주 인력 수요 26만명…돌봄·보건 쏠림

광주인자위 인력·훈련수급 분석

올해 광주지역에서 필요한 인력 중 돌봄·보건 분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주인자위)는 5일 ‘2025년도 광주지역 인력·훈련 수급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광주지역 전체 인력수요 전망치는 26만 4629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경영지원 사무원’이 2만 1871명(8.3%)으로 가장 많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1만 8583명·7.0%), 간호사(1만 5349명·5.8%), 청소년·가족·사서서비스원(1만 4848명·5.6%), 제조단순종사자(1만 3086명·4.9%)이 뒤를 이었다. 직업훈련 수요는 구직자 대상 양성훈련과 재직자 향상훈련 모두 돌봄서비스 직종에 집중됐다. 향상훈련 수요의 17.2%, 향상훈련 수요의 17.3%가 돌봄서비스 종사자로 나타나 휴먼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 보건·복지 직종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제는 수요 대비 훈련 공급 부족이다. 수급 분석 결과, 향상훈련에서는 간호사가 1056명으로

가장 큰 부족이 예상됐고, 보육교사(762명), 전기·전자 부품 생산기계 조작원(605명) 순으로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훈련에서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2124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인력 부조화(미스매치)가 가장 심각한 직종으로 꼽혔다. 광주인자위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집중 육성할 ‘우선공급 훈련직종’ 50개를 선정했다. 양성훈련 29개, 향상훈련 21개 직종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 직종과 제조 숙련 기술, 보건·돌봄 필수 서비스 분야 등을 포함했다. 인자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가전 제조 등 주력 산업과 보건·복지 분야 맞춤형 훈련 과정을 집중 개발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혜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163.57 (-207.53)
↓ 코스닥	1108.41 (-41.02)
↓ 금리 (국고채 3년)	3.204 (-0.008)
↑ 환율 (US D) <오후 4시 20분 기준>	1465.10 (+14.90)